Vol.331 January+February

세아가족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뜨거울 길을 가진 사람들



세아제강 기술연구소에서 용접 결함과 위험 영역을 면밀히 주시해 온 사람이 있다.
2010년 세아업적상 기술개발 부문 금상에 선정된 은성수 Part Leader이다.
단단하고 강해 보이는 외모만큼 강한 정신력을 가진 그의 다음 도전을 기대해 본다.



세아의 미래 세아가족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아의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세아인 여러분입니다.

성공의 나이테를 새기면서
오랜 세월 담담하고 탄탄하게 위용을 펼치는
세아라는 큰 나무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세아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세아의 미래입니다.

SEAH

세아가족
세아그룹 가족들을 위한 사보

Vol. 331
January | February 2011

Contents

Special Theme

02 **신년사** 여러분의 경쟁력이 세아의 미래입니다
04 **프롤로그** 사람을 소중히
06 **세아의 생각** 100년 기업을 향한 세아의 인재육성
08 why&how 글로벌 기업 GE의 '선택과 집중' 통한 인재육성 전략
10 **세아의 노하우맨** 뛰어난 인재가 되기 위한 나만의 비법!

Story in SeAH

12 SeAH inside 세아베스틸-진양공업 전략적 제휴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 첫 제품 출하
14 SeAH Special Report 2011 상반기 그룹경영회의
2010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 소개
세아베스틸 신년 음악회
22 Open your Team 한국번디 영업2팀
26 Talk by Specialist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용접기술파트 은성수 Part Leader

Happy in SeAH

30 **와이키키 브라더스** 세아특수강 절친 삼총사의 〈조선명탐정〉 관람기
34 **와글와글**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36 **행복한 나들이** 세아베스틸 특)생산관리팀
40 **세아가 응원합니다** 새해 첫 탄생한 아기 '세아'만큼 세아의 힘찬 한 해 기대
42 **세아뉴스**
49 **사우동정**

〈세아가족〉 통권 331호 2011년 1+2월호

발행일 2011년 2월 17일 |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그룹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 **홈페이지** www.seah.co.kr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3783-8163
디자인 · 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 **표지촬영** 다뷰스튜디오 02-766-8025



여러분의 경쟁력이 세아의 미래입니다



세아가족 여러분, 희망찬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것은 커다란 선물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아의 여러 부문에서 크고 작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아제강이 오랜 시대적 변화와 산업의 부침을 딛고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종합준공식을 통해 특수강 증산투자 완료와 새로운 대형단조사업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렸습니다. 곧 상장을 앞둔 세아특수강은 충주 제2공장 설립에 한창이며, 세아홀딩스가 새롭게 추진하는 전략적 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광양합금철이 세아의 가족으로 편입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세아가족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입니다.

1960년 강관생산으로 사업의 첫 발을 내디딘 후 지난 50년 동안 세아는 끊임없이 성장의 수레바퀴를 굴려 왔습니다. 7~80년대 강관사업으로 튼튼한 기반을 만들었고, 90년대 철강제조 분야의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를 거쳐 2003년 인수한 특수강 사업으로 한 단계 높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세아가 반세기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가꾸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정도와 신뢰 경영, 성실한 자세,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2011년,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숙한 기업으로서 지난날의 성과에 걸맞게 가치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미래 투자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경제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변화의 속도와 크기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기업은 과거의 성공방식만을 답습하거나 현상 유지에 만족해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진화만이 기업을 유지하게 하며 경쟁에서도 살아남게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어떠한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됩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 요소는 R&D 경쟁력입니다. R&D의 경쟁력은 연구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비단 R&D뿐만 아니라 시장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일, 신사업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일, 설비가동과 생산을 책임지는 일, 기술력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의 중심에 서게 하는 활동의 주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세아는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나가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의 무게를 인재경영에 우선할 것입니다. 2011년에는 그 동안 추구해왔던 세아의 소중한 가치에 인재경영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아의 밑바탕에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소중한 가치로 지키고 보존해왔다면, 앞으로는 이를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도와 신뢰 경영, 성실한 자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등 귀중한 자산을 가진 세아는 선진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될 만한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를 내다보는 가치인 인재경영에 대한 인식이 더해진다면 우리가 꿈꾸는 목표는 꿈이 아닌 현실로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도 튼튼한 회사, 직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회사,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세아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지상 과제입니다. 올 한 해 어떠한 경쟁력을 형성하고 발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아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아가족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세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2011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의욕과 희망으로 시작하는 2011년, 세아가족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1월 3일 신묘년 새해 아침

회장 **이 운 형**



사람을 소중히

세계의 일류 기업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사람을 소중히 하는 기업 세아입니다.

"회사가 학교냐?" 불과 10여 년 전 우리나라 기업에서 업무시간 중 책을 읽거나 상사에게 교육 기회를 달라고 하면 여지없이 돌아온 말이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업이 자처하여 '회사는 곧 학습조직'임을 강조하는 시대가 왔다. 현재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회사조직을 학습조직으로 만들고 인적자원 개발에 골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이다.

글 • •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팀 **한진기** 상무

100년 기업을 향한 세아의 인재육성

세아의 인적자원 개발 주체

세아그룹에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주체는 임직원 개개인, 각 계열사, 그리고 그룹(세아홀딩스)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임직원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mindset)이다. 하루가 다르게 많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스스로 학습하지 않으면 세상은 앞서 나가는데 자신만 뒤처지게 된다. 구성원 개개인이 뒤처지면 기업 전체가 뒤처진다. 학습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업무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리고 채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적합한 학습의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계열사 측면에서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이 경쟁사와 가장 본질적인 차별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선진 기업들의 제도나 시스템 등은 벤치마킹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람만은 복제할 수 없다. 각 사업 영역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최상의 인적자원집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육과 훈련에 투자해야 한다.

그룹 차원에서는 구성원 개인의 자기계발과 각 계열사의 투자노력을 결집하여 그룹을 대표하고 나아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세아그룹에서는 세아의 핵심가치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세아만의 인재육성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아만의 인재육성을 위한 주안점

세아의 인재육성 방향은 우선 핵심가치와 핵심역량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감사와 겸허, 신뢰와 성실로 점철되는 세아의 핵심가치는 50년 성장의 역사에 뿌리가 되어 온 세아만의 기본정신이다. 100년 기업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기본정신의 유지 · 강화는 필수다. GE의 경우, '성과는 탁월하지만, 기업 가치와 다른 행동을 하는 나쁜 리더는 내보낼 수밖에 없다. 나쁜 리더는 다른 직원을 떠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공식화한다.

인적자원 개발영역에서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은 구성원들이 키워 나가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를 뜻한다. 세아는 변화관리, 창의성, 도전정신, 전문성, 융화력 등 5가지 핵심역량을 정하여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계층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구성원들의 핵심가치와 핵심역량의 수준을 꾸준히 점검, 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기본 육성방침으로 삼고 있다. 바커스 버킹엄은 재능과 강점에 관하여 갤럽이 수년간 200만 명 이상을 인터뷰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담은『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기보다 자신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정보네트워킹 사회에서는 효과적이라 주장했다. 또한, GM에서 15년, GE에 6년간 근무한 어느 간부는 "GM은 성과가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잘한다는 인식 아래 오히려 교육 기회를 주지 않지만, GE는 성과가 좋은 직원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주어 조직의 성과를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세아 역시 그룹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시행 · 계획 중이다.

선택과 집중의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

그룹 인재육성의 시작점이 되는 세아 챌린지 리더(SCL, SeAH Challenge Leader) 과정은 그룹 차원에서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대리~과장 직급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의 집합 교육을 통해 다양한 테마들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현재 약 60명의 챌린지 리더를 배출했다. 정규 MBA 과정의 주요 핵심과목을 압축하여 최신 이론과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SPEC(SeAH Pre-Executive Course)은 리더에게 필요한 통합적 비즈니스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한 과정이다. 매년 7~8월, 5~8주간의 합숙 교육으로 진행되는데, 타 철강회사 직원들도 공동 참여하므로 서로의 역량을 비교하면서 동기부여와 지적 자신감 함양 등 정성적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60명이 수료한 SPEC는 부장 및 이사 직급을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하였으나, 챌린지 리더 중 일부를 선발하여 전반적으로 대상 직급을 낮출 계획이다. 나아가 글로벌 경영환경에 걸맞은 인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리더십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현지 체험을 기반으로 한 세아 글로벌 리더(SGL, SeAH Global Leader) 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 중이다. 이 밖에도 세아의 업종 특성상 R&D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이공계 분야 전문가 육성과, 재무 및 HR 분야의 전문가 집단 형성을 위해 대학원이나 정규 MBA 지원 계획도 마련 중에 있다.

현재 세아그룹의 교육은 많은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강사들에 의해 진행된다. 향후에는 '세아인에 의한 세아인 육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내 강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그룹 연수원 건립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 바로 인재육성이 100년 기업을 향한 세아의 발걸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세아그룹에서는
세아의 핵심가치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세아만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신망받는 기업 중에서 항상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종합 가전 대기업 GE(General Electric). 20세기 최고 경영자 잭 웰치를 배출하는가 하면 뛰어난 인재경영으로 유명한 GE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인재육성 전략을 고민해본다.

글••정연식 (KT커리어컨설턴트)

글로벌 기업 GE의 '선택과 집중' 통한 인재육성 전략

활력곡선으로 차별화 실시하는 GE의 인재교육

19세기 최고의 발명왕 에디슨이 창업했고,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라 불리는 잭 웰치를 배출했으며, 21세기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GE(General Electric). GE의 인재양성의 중심에는 크로톤빌연수원이 있다. GE의 인재들은 이 크로톤빌연수원을 통해 개발, 교육 훈련 등을 공유해 오고 있다. 더구나 임원 이상의 인재들은 정기적으로 크로톤빌연수원에서 직접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난 25년간 300개 이상의 경영 교육 과정이 운영되었고, GE의 회장은 한 과정만 제외한 모든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강연했다. 회장이 참석하지 못한 그 한 과정은 복막염으로 인한 경우였다. 이러한 사실은 GE가 얼마나 인재육성에 전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이다 보니 크로톤빌에서의 교육 기회는 세션 C(Session C)라 불리는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소수의 잠재력 있는 인재들에게만 돌아간다. 세션 C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업적, 교육, 승진, 후계자, 보상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는 연속적인 프로세스다. 이 프로세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유명한 활력곡선(Differentiation Vitality Curve)이다. 활력곡선은 우수그룹 20%, 중간그룹 70%, 그리고 하위그룹 10%로 나눈다. 크로톤빌에 입과할 수 있는 인재는 바로 이 20%의 우수그룹에 속한 자들이다. 물론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급료, 스톡옵션, 승진 등의 보상체계도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인재육성의 전략으로 대공황,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금융위기 등 위기의 파도를 헤치고 오늘의 GE를 이룩할 수 있었다. GE의 인재육성 전략이 우리 기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째,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최고경영자인 회장의 25년간 300개 이상의 경영 교육 과정의 참여와 강연, 고위 임원들의 교육 참여와 강연, 본사 부사장이며 최고 학습 담당 책임자(CLO; Chief Learning Officer)인 크로톤빌연수원장의 의무와 책임 등은 GE의 최고경영진들이 인재육성에 얼마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 전제가 그러하듯이 인재육성이라는 비즈니스도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모든 실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으로는 차별화된 인재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GE의 활력곡선은 그 본래의 의미가 '차별화된 활력곡선(Differentiation Vitality Curve)'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은 인재전쟁의 시대 글로벌 인재육성은 평균 지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연봉, 승진, 그리고 교육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실행처럼 철저히 성과 지향적이어야 한다. 20%의 핵심인재들에게는 전략적 부서 이동으로 철저히 임원 훈련을 시켜야 한다. 70%의 중간그룹에게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일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10%의 저성과자들에게는 실수를 통한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실수가 계속될 때에는 조직과 개인이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런 성과에 기초한 차별화 제도가 진정한 인재육성의 기본 전제로 든든히 서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셋째, 실행 면에서 성과관리 프로세스가 정착되어야 한다. GE의 위대함은 연초의 목표 설정, 연중 실시되는 코칭과 피드백, 철저한 평가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정착에 있다. 실행과 정착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며, 실행을 넘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정착되었다는 말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기업들도 다 하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대로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글로벌 기업들과 일반 국내 기업들의 차이다.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실행하는가 아니면 알고도 하지 않는가가 핵심이라는 말이다.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지원, 차별화된 인재육성 전략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정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뛰어난 인재가 되기 위한 나만의 비법!

세아 챌린지 리더 3기에게 듣는다

멈추지 않고 100년 기업을 향해 달려가는 세아의 앞날을 밝혀주는 인재들. 그들에게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멋지게 발휘하는 법을 살짝 물었습니다. 세아 챌린지 리더 3기들이 세아가족들에게 귀띔해 주는 뛰어난 인재가 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 대공개!

과거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

세아제강 생산계획팀 **이대성** 과장

과거의 방법과 현재의 모습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최적의 방법과 개선할 점을 찾아 노력합니다.

직장 내, 조직 내에서 1인 기업가로 거듭나라!

한국번디 영업기획팀 **최성** 대리

나는 회사 안에서 나의 이름을 내건 1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매일매일 혁신하고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합시다!!

창의적 사고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다.

세아 E&T 영업1팀 **김상용** 과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 조건이 붙죠. 창의적인 사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쉽지 않지만 노력이 더해진 창의적 사고는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됩니다.

일 잘하는 방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세아제강 부산실수요팀 **임준혁** 대리

일을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포기하거나 늘 잘 달릴 준비만 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그날이 그날일 겁니다.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일과 성공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됐어'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기

강남도시가스 안전기획실 **김이한** 대리

자기만족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으로 전체를 보면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을 탑을 쌓는 마음으로!

세아베스틸 단조팀 **양정순** 대리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되는 것과 같이 초기에는 기본에 충실하며 내실을 다지고, 이런 바탕 위에 현장 경험과 학습을 통해 업무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세아 ESAB 생산팀 **이진오** 과장

인생에 정답은 없기에 긍정적인 사고로 뭐든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일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자신감이다.

세아베스틸 압연설비팀 **신용무** 대리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사이에는 오직 한 가지 차이밖에 없는데, 그것은 돈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야, 성공의 비결은 자신감이란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있지. 충분히 준비할 것, 경험을 쌓을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매리 매털린(딕 체니 미국 부통령 자문관)에게 아버지가 들려준 말.

원칙경영

한국번디 품질경영팀 **손영민**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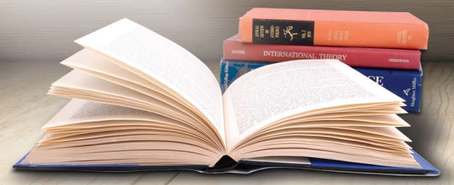
동료에게는 여름처럼 따사롭고, 자신에게는 겨울 서리처럼 차갑게, 동료를 배려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더불어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자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제 원칙경영입니다.

생각보다 말보다 실천을 중시한다.

세아특수강 포항 생산팀 **허민** 대리

생각이 생각에 그치지 않게, 말이 말로써 끝나지 않도록 실천합니다. 행동에 잘못이 있더라도 해봄으로써 잘못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노하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최대의 실수입니다.











inside #1

세아베스틸-진양공업 **전략적 제휴**

세아베스틸이 압연업체인 진양공업 지분의 35%를 인수·투자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확대한다. 세아베스틸은 늘어나는 자동차 특수강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진양공업과 공급능력을 연간 40만t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하고 신규 투자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세아베스틸과 진양공업은 선제적인 공급능력 확대로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신규 투자를 통해 증설된 설비에서 진양공업의 수주분과 세아베스틸의 임가공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진양공업은 임가공물량 확보로 초기 가동률 저하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세아베스틸은 오랜 공정경험을 신규 설비에 접목할 수 있어, 양사는 국내 수요산업의 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투자에 따른 리스크 해소와 경제성 확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진양공업은 설비 노후화와 공급능력 제약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어려움을 겪자 후처리 공장을 중심으로 신 공장을 건설 중에 있었다. 그러나 투자에 따른 초기 가동률 저하와 신규 자동화 설비 운용에 대한 부담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세아베스틸이 지분 투자로 참여함으로써 경북 영천의 현 공장 인근에 연 40만t 규모의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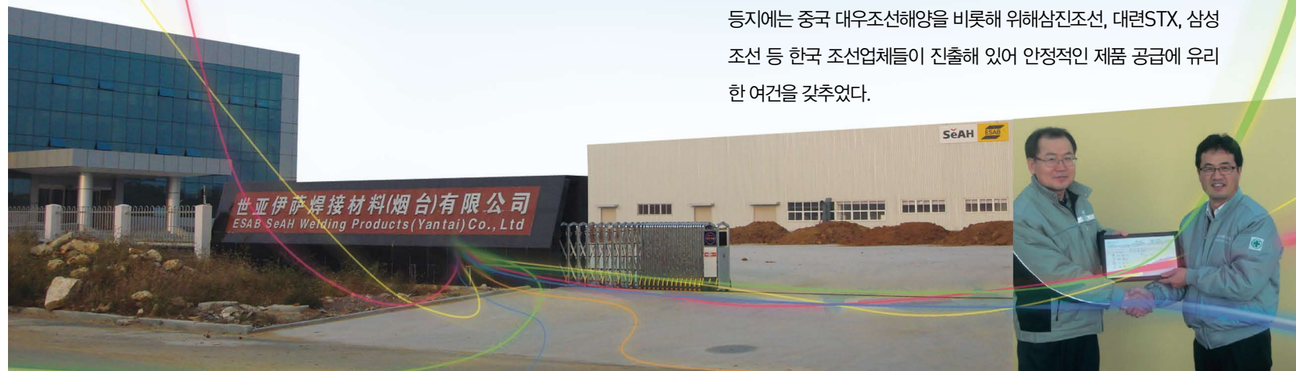
세아베스틸은 수주량이 생산량을 넘어서고 있어 추가 생산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 여건에서 이번 제휴를 통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적 투자방식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특수강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기업 상생경영 차원에서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약 6천 3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제강공장 증설과 기존 라인의 합리화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연간 생산능력을 180만t에서 특수강 200만t, 대형단조 30만t 등 총 230만으로 확대했다.

inside #2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 **첫 제품 출하**

중국 옌타이시에 Exelvia와 세아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에서 첫 제품이 출하됐다.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는 이번 첫 제품 출하를 시작으로 대내외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중국 옌타이 현지법인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가 1월 첫 생산제품을 출하했다. 2008년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ESAB의 자회사인 Exelvia와 세아가 합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특수 용접재료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과 가동 준비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본격적인 생산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공장의 생산 가동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며 중국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1월 18일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에서는 제품 출하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첫 출하제품의 발주사인 대우조선해양 배재욱 부총경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발주서 전달식, 첫 제품 상차식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 배재욱 부총경리는 인사말을 통하여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의 DS7100 제품은 우수한 품질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안정적인 공급으로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상호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첫 출하된 제품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FCW) DS7100 제품으로, 중국 대우조선해양 훈련소용으로 주문받았던 60t 물량 중 6t 분량이다. 중국 대우조선해양은 2006년 훈련소를 개소한 이후 사내외 훈련소를 통해 매년 1,500여 명의 용접공을 배출해 내고 있다.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가 납품한 제품은 조선소에서 필요한 용접공 양성 교육에 사용된다.

현재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국가경제개발구 내에 위치해 있다. 인근 산둥성과 랴오닝성 등지에는 중국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위해삼진조선, 대련STX, 삼성조선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진출해 있어 안정적인 제품 공급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었다.

1월 1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2011년 상반기 그룹경영회의가 열렸다. 계열사 임원 약 74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 강도가 점점 거세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신속한 시장 대응력과 선제 대응력을 발휘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가 강조됐다.

2011년 상반기 그룹경영회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꾸준한 성장세로 경쟁력 축적

2011년 상반기 그룹경영회의에서는 지난해 그룹의 주력인 철강제조사업 부문에서의 의미 있는 실적들이 공개됐다. 지난 3년간 세아는 불황 등 극심한 굴곡을 경험했음에도 전반적으로 국내 매출액이 매년 평균 약 11%씩 증가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생산량 증가 및 설비 합리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주력 철강 계열사들의 제조 원단위가 5~15%씩 감소됐다. 그리고 2010년, 비교적 큰 변수가 없었던 시장상황에서 경영성과가 대폭 개선되면서 그동안 세아가 축적해온 경쟁력의 한 단면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가 우수했던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세아특수강 대표이사에게 2010 세아경영대상 우수상이 수여됐다. 아울러, 세아의 해외법인들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는 SeAH Precision Metal (Thailand) 이동욱 법인장이 세아경영대상 특별상에 선정됐다. 태국법인은 2004년 설립 이후 적극적인 시장 및 제품판매 확대 정책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010년 218억 원의 매출과 13%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 한편, 경영성과가 대폭 개선되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2010년 경영대상의 수상자는 아쉽게도 없었다. 1996년부터 시행해 온 세아경영대상은 2011년부터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 임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평가기준도 재무성과 중심의 정량적인 평가 방식을 보완하여 개별 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방식으로 변경될 방침이다.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을 포상하는 2010 세아업적상에는 7개 사로부터 총 10건이 접수된 결과, 세아베스틸 제강&연주팀 홍성원 팀장 외 3명이 고청정강 제조기술 확보로 수율과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여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은성수 파트리더 외 1명과 한국번디 영업2팀 이정록 팀장 외 3명 등 2개 팀이 금상을 수상하고,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 최용덕 차장 외 2명과 세아메탈 R&D팀 주형백 팀장이 은상에 선정됐다.

특히 이번 세아업적상에는 임원 부문 특별상이 추가로 신설되어 세아제강 조진호 이사가 그 첫 번째 영예를 안았다. 조진호 이사는 전략적 원재료 조달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와 주요 프로젝트의 설비 및 공사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근속 30년을 맞이한 한국번디 전규동 대표와 세아제강 정진섭 상무가 포상을 받았다.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대응할 것

세아는 2011년 15%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철강시장의 변동 주기가 짧아지고, 세계 철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기 변동이나 수출정책 변화 등의 영향으로 극심한 경기 변동이나 부침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이 크게 요구된다. 경영회의에서는 이 때문에 2가지가 강조됐다.

하나는 R&D에 대한 중요성이다. 세아 전체를 보면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R&D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더욱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경쟁력을 창출하는 인재의 육성을 꼽았다. 상존하는 위기 대처와 신 성장동력의 확보, 해외시장의 확대를 수행해 낼 임직원들의 능력 개발과 향상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세아의 인재들을 많이 육성,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 강도가 나날이 심해지는 시장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력과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선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수행 과제이자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2010년 하반기 공채를 통해 선발된 세아그룹 신입사원 49명이 합숙교육을 마치고 12월 13일 각 부서로 배치되었다. 좁은 취업문을 뚫고 신입사원 교육에 입문하여 함께 일할 동기들을 만나고, 기업에 대해 새록새록 알아가는 사회인으로 첫 걸음을 뗐다. 아직은 긴장감으로 사회생활을 배워 나가고 있을 새내기 세아인들의 모습을 공개한다.

세아의 미래, **2010년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Q. 1. 나는? 2. Why SeAH? 3. 면접 시 이것으로 승부했다.



홍정은
세아홀딩스 재무관리파트
1. 나는 잔다르크다.
2. 세아의 탄탄한 내실과 면접 시 느낀 선배님들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
3. 세아에 오고 싶은 솔직한 마음



유원정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파트
1. 나는 쿨한 여자다.
2. 알면 알수록 더 좋은 회사
3. 입사를 향한 강력한 의지



김현석
세아홀딩스 경영지원파트
1. 나는 들이대는 인물이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기 때문
2. 기본과 정도를 지키는 기업
3. 성실함



김동민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1. 나는 휴머니스트다.
2.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보기 드문 탄탄한 기업
3.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



윤대근
세아제강 생산기술팀
1. 나는 호빵이다.
2. 전 세계로 뻗어가는 성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
3. "인연"이었다.



유진상
세아제강 판재 품질경영팀
1. 나는 김치의 고춧가루다.
2. 철강업계에서 신뢰와 튼튼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회사
3. 젊은 열정과 자신감을 담은 목소리



이재영
세아제강 창원 품질경영팀
1. 나는 세아 엔지니어의 전설이다.
2.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세아가 최고니까.
3. 자신감



이정석
세아제강 판재 설비팀
1. 나는 항상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다.
2. 군산에서 세아와 관련한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비전을 보고 선택했다.
3. 솔직함



송경석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1. 나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다.
2. 튼튼한 재무구조와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았다.
3. 많은 사회 경험



하강명
세아제강 설비보전팀
1. 꼼꼼한 하여사
2. 장수 기업이면서 계속 혁신활동을 하는 세아제강의 비전을 보았다.
3. 눈웃음



강화석
세아베스틸 공정연구그룹
1.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2. 대학 때 철강에 흥미를 느꼈다.
3. 사회, 경제 이슈에 대한 지식



김민준
세아베스틸 공정연구그룹
1. 콜럼버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다.
2. 금속업계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비전을 보았다.
3. 밝은 모습과 자신감



권문혁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
1. 나는 볼매의 매력을 가졌다.
2. 설비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3. 자신있는 인사,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웃음



김호승
세아베스틸 영업2팀
1. 나는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2.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다.
3. 당당함



김홍수
세아베스틸 특)소형압연팀
1. 나는 세아그룹의 ACE다.
2. 사람을 소중히 하는,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
3. 자신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직함



김준호
세아베스틸 연주팀
1. 세아베스틸의 일꾼
2. 회사와 내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3. 나의 약점을 노린 날카로운 질문에 웃으며 대처했다.



김윤성
세아베스틸 압연설비팀
1. 방청객이다. 귀를 기울이고 호응을 잘 한다.
2.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경영이념과 경쟁력
3. 웃는 얼굴과 자신있는 태도



김일용
세아베스틸 2차가공팀
1. 의리와 불굴의 의지로 똘똘 뭉친 야생늑대다.
2. 세아의 역사, 내실 있는 경영, 성장 가능성
3. 의리



문유석
세아베스틸 수출팀
1. 나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나이다.
2. 세아베스틸이 특수강 업계 1위이기 때문이다.
3. 겸손함



배수영
세아베스틸 기획팀
1. 푸른 불꽃. 빨간 불꽃보다 뜨겁고 밝으니까.
2. 세아의 튼튼함
3. 모르는 것은 인정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신경식
세아베스틸 구매2팀
1. 나는 용강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남자다.
2. 놀라운 성장과 가능성, 사람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점에 매료됐다.
3. 자신있는 어투



송유창
세아베스틸 주조팀
1. 포기를 모르는 남자다.
2. 기반이 튼튼한 경영정책과 세계 속의 기업으로 발전할 비전
3. 우직함



이은규
세아베스틸 단조기술팀
1. 카멜레온. 누구든지, 어디서든 적응 가능!
2. 인간적인 그룹 이미지와 세아베스틸의 비전
3. 인간적인 솔직함과 당당함



이동수
세아베스틸 제품연구그룹
1. 항상 웃는 얼굴을 가진사람
2. 특수강 합금설계와 열처리 등 관심분야가 맞는 회사
3. 긴장된(진지한) 답변



이범용
세아베스틸 영업지원팀
1. 나는 밤톨이다.
2. 나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했다.
3. 인성



이세종
세아베스틸 구매1팀
1. 곰국 같은 사람. 끓일수록 진국이 될 것이다.
2.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회사에 인생을 걸겠다.
3. 신입사원다운 패기



이원민
세아베스틸 구매2팀
1. 나는 사회인이다.
2.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이 보였다.
3. 솔직함



이태수
세아베스틸 제강팀
1. 나는 재간둥이다.
2. 튼튼한 기반과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3.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임을 어필



이호영
세아베스틸 단)품질보증팀
1. 나는 밝아오는 태양이다.
2. 현재보다 미래가 밝은 회사라서 선택했다.
3. 솔직함



임경택
세아베스틸 품질보증팀
1. 나는 인간미가 넘치는 남자다.
2. 나를 먼저 알아봐 주고 선택해주었다.
3. 당당함



윤진규
세아베스틸 제강팀
1. 나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남자다.
2.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
3. 센스있는 대답과 호감형인 얼굴



조기연
세아베스틸 시험연구그룹
1.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입사원이다.
2. 선택이 아니라 필연!
3. 자신감과 일을 즐기겠다는 마음가짐



정상현
세아베스틸 수출팀
1. 나는 세아의 주인이다.
2. 특수강 업계 1위라는 경쟁력에 강렬하게 자극받았다.
3. 시원시원함



최진훈
세아베스틸 단조설비팀
1.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다.
2. 산업에 근본이 되는 철강을 다루기 때문
3.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



최영욱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
1. 나는 카멜레온이다.
2.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욱 크며,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3. 겸손한 자세



최중선
세아베스틸 특)생산관리팀
1. 세아그룹을 최고로 만들어 나갈 사람이다.
2. 글로벌 기업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보았다.
3. 철강재료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



최경민
세아베스틸 단)품질보증팀
1. 나는 비싼 남자다.
2. 세아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3. 자신감과 솔직함



황남규
세아베스틸 공정연구그룹
1. 나는 치킨 먹을 때 나오는 '무'이다.
2.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깨끗한 기업 이미지
3. 당당함



황선욱
세아베스틸 제품연구그룹
1. 나는 물처럼 조직에 잘 스며들 수 있는 사람이다.
2. 내 역량을 가장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곳
3. 나의 성장 가능성



김민철
세아특수강
1. 나는 어린시절 유도선수였다.
2. 사회적 이슈를 만들지 않고도 묵묵히 제 역할을 다 하는 기업
3. 강한 입사 의지



신동국
세아특수강
1. 나는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2.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회사로 큰 성장 가능성을 느꼈다.
3. 중국어 실력



정영훈
세아특수강
1. 나는 세아인이다.
2.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세아의 가치에 반했다.
3. 자신감



김동길
세아특수강
1. 나는끊임없는사람이다.
2. 금속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
3. 겸손한 자세



이민형
세아특수강
1. 나는 피로회복제다.
2. 사람을 중요시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
3. 미소와 끊임없는 질문



김지건
세아 ESAB 설비관리팀
1. 해운대 북극곰 수영대회도 나가는 당찬 남자다.
2. 기업문화가 좋았다.
3. 환한 미소와 적당한 긴장감



박경현
세아 ESAB 품질경영팀
1. 나는 러닝맨이다.
2. 내 인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3. 당당함



손진수
세아 ESAB 생산기술팀
1. 나는 엔지니어이다.
2. 미래 지향적이며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
3. 뻔뻔함



이규혁
세아 ESAB 국내영업팀
1. 나는 세아인이다.
2.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분위기와 탄탄한 재무구조 때문
3. 꾸밈없는 솔직함



조민호
세아메탈 서울영업팀
1. 나는끊임없는사람이다.
2. 금속을 좋아하기 때문에
3. 겸손한 자세





세아베스틸과 함께 하는 신년 음악회

새해, 새 희망을 연주하다



음악처럼 새 희망이 충만한 2011년 기대

"새해를 음악회와 함께 보내면 그 해가 음악처럼 된다고 합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왈츠의 선율처럼 추위도 어서 물러가기를 빕니다."

사회를 맡은 장일범 음악평론가의 인사로 본격적인 음악회가 시작되면서 추운 날씨에도 객석을 꽉 채워준 세아베스틸 가족들의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음악회의 서두는 왈츠로 장식됐다. 정낙복 지휘자가 이끄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요한 스트라우스의 주옥같은 왈츠들을 쏟아내자 객석은 계속되는 추운 날씨로 움츠러든 모습을 뒤로 하고 이른 봄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이번 음악회는 세아베스틸이 '직원 가족들의 화목과 유쾌함이 충만한 한 해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감동과 화합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기획됐다. 정낙복 지휘자와 함께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음악처럼 새 희망이 충만한 2011년이 되도록 세아베스틸 가족들을 위한 풍성한 음악선물을 선사했다.

고난을 만나도 음악처럼 힘차게 극복

"최고의 특수강 기업 세아베스틸이 군산에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세아베스틸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서로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경쾌하고 흥미진진한, 귀에 익은 성악곡들로 이어진 중 · 후반부에서는 김인혜 소프라노와

세아베스틸에서 색다른 신년맞이 행사가 열렸다. 사원 가족들과 함께 새해, 새날을 위한 희망을 나누고자 신년 음악회를 개최한 것. 1월 18일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세아베스틸과 함께 하는 신년 음악회'에는 1,000여 명의 사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호응 속에서 2011년 세아베스틸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주옥같은 연주들을 쏟아냈다.





서정학 바리톤의 협연이 세아베스틸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장일범 진행자의 곡 해석이 더해져 음악회는 재미와 흥미는 물론, 가족들의 일체감과 큰 박수갈채를 이끌어내며 한층 무르익었다. 서정학 바리톤이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를 부르며 관객석 뒤쪽에서 등장했을 때에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듯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음악을 통해 2011년 희망을 전해

"세아베스틸과 함께 하는 음악회는 새해, 새날을 맞이하는 세아베스틸의 분위기에 걸맞은 황홀하고, 멋진 운명적인 음악회였습니다."

곡의 해석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이 한 곡 한 곡 무대에 오를 때마다 2011년 한 해를 멋지게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가 음악을 통해 세아베스틸 가족들에게 전달됐다. 음악회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 사라사테의 바이올린 연주곡, 푸치니와 로시니 오페라의 성악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4악장 등이 연주됐다.

이번 신년 음악회는 세아베스틸이 군산시민들과 함께 문화 공유를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이자,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한편, 임직원과 협력사 가족들이 함께 믿음과 화합으로 2011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한국번디 영업2팀

뜨거운 **마음**과 냉철한 **이성**, 발로 뛰는 **열정**까지

한국번디 영업2팀에게 2010년은 분주한 해였다. 고효율 Turn-Fin Condenser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굴지의 가전업체 신규 모델 개발에 참여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에 성공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지성과 열정을 겸비한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고, 고객사의 니즈를 파악하는 영업2팀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국을 누비며 최고 매출액 달성

한국번디 영업2팀은 평택과 광주공장, 이 두 사업장을 한데 아우르며 냉장고 사이클 부품의 판매를 극대화시키고 한국번디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 팀이 두 사업장에 걸쳐 있다 보니 팀장과 팀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기에 바쁘다. 게다가 고객사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집에서 가족,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희망사항일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그 이유는 2010년 매출이 전년 매출 실적보다 30% 이상 성장했으며, 더욱이 한국번디 전체 매출액의 반을 바로 영업2팀에서 이루어 내 회사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32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번디는 냉장고용 튜브를 시작으로 현재는 자동차용 튜브 및 해외 수출 등으로 제품군을 키워가고 있다. 이 중에 냉장고 부문의 제품군은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이에 국내 백색가전의 대기업인 삼성, LG, 대우 등에 한국번디 신기술을 소개하고 적용하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사무실을 비운다.

신시장 신제품으로 시장의 한계를 극복

소형 스틸튜브를 제조하는 한국번디는 중국의 저가 제품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응하고자 현재 해외법인 설립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내는 가공사업에 진출해 있다.

그 중 냉장고 부문에서는 Condenser, Evaporator, Suction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 생산한다. 특히 최근 개발한 Turn-Fin Condenser 제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확장시키는 중이다.

도전정신과 발로 뛰는 열정

한국번디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해외법인 설립, 냉장고·자동차 가공 부문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비전인 "2015년 1조 원 달성 목표 및 글로벌 튜브업체 TOP3로 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수한 제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 신제품의 프로모션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업2팀은 늘 고민하고 도전하며 열정을 불사른다. 고객사 생산라인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적용해보면서 해당 구매팀 및 개발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정보를 얻기 위해 1년 내내 전국 각지 어디든 발로 뛰는 선봉대, 영업2팀의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한국번디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다.



한국번디 영업2팀 **이정록** 팀장

INTERVIEW

"끊임없는 노력으로 '1111' 목표달성을 이뤄낼 터"

2010년에는 세아업적상 영업부분에서 금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 어느 해보다 뿌듯했습니다. Turn Fin Condenser 부품을 LG전자 냉장고에 적용하여 높은 매출신장을 이룬 데에 대한 성과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여 올해의 목표를 '1111을 이룩하자'로 정했습니다. '연간 1,000억 원, 월 100억 원, 회사 내 영업률 10%대 진입, 각 고객사에 이 분야 1위 기업으로 이미지를 각인시키자는 뜻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2팀원들은 의기투합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고객사를 상대로 메일이나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눈과 눈을 마주하며 정을 쌓아나가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10번 전화하고, 100번 메일 보내느니, 한 번 직접 만나 한국번디의 우수한 제품을 알릴 것입니다.

더불어 팀 내 결속력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영업2팀은 본사에 4명, 광주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멀리 있지만 앞으로도 작은 것까지 서로를 챙기며 조화를 이뤄갈 계획입니다.

한국번디 영업2팀의 신묘년 새해 목표는?



이종원

위니아 만도 외 경기지역 거래처 관리 및 개발 담당. 섬세하고 알뜰살뜰하게 거래처와 동료들을 챙겨 인기 만점!





윤동욱 대리

삼성전자 외 호남지역 거래처 관리 및 개발 담당. 원어민도 놀랄 만큼 뛰어난 영어실력을 갖고 있다. 후배들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남자.



이호영

LG전자 외 영남지역 거래처 관리 및 개발 담당. 잦은 출장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발전을 꾀하는 꾀돌이.



이혜진

평택공장 영업2팀 관리 안주인. 꼼꼼하면서도 시원스런 성격으로 융통성과 판단력을 겸비한 평택의 미녀!!



기세진

대우전자 외 호남지역 거래처 관리 및 개발 담당. 광주공장 영업2팀의 안살림을 맡고 있는 살림꾼. 현란한 말솜씨와 애교의 소유자.



이정록 팀장

영업2팀의 총사령관. 남다른 패션감각과 동안,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팀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큰 형님이다.



양재덕 과장

웅진코웨이 및 전국 영업 총괄 담당. 바른 생활 사나이. 지성과 교양을 갖춘 것은 물론 운동까지 잘하는 팔방미인!

세상의 모든 길은 세아로 통한다



은성수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용접기술파트 Part Leader

세아제강 기술연구소에서 용접 결함과 위험 영역을 면밀히 주시해 온 사람이 있다. 2010년 세아업적상 기술개발 부문 금상에 선정된 은성수 Part Leader이다. 단단하고 강해보이는 외모만큼 강한 정신력을 가진 그의 다음 도전을 기대해본다.

1. 세아제강 기술연구소에서 맡은 업무에 대해

용접 관련 업무는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재료의 물성적인 접근, 둘째는 생산 시 나타나는 현상을 계측장치를 통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제가 있는 용접기술파트는 후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계측하고, 수치화 및 객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지금까지 불편하게 지속된 주관적인 작업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데이터에 의한 표준화된 객관적인 방식의 업무 추진과 JCO와 같은 SAW(잠호용접) 분야에 많은 노력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 2010년 세아업적상 기술개발 부문 금상 수상소감

2003년에 "조관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금상을 받았고, 2011년에는 "요소기술 자체 개발로 생산성 향상 및 특허 출원을 통한 기술우위 확보"로 금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용접 결함과 위험 영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품질 향상은 물론, 규격 변경 시 낭비시간을 없애고, 요소기술의 자체 개발 및 용접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사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2번째 금상 수상이라 더욱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져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기술개발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았기에, 올해도 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세아업적상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3.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을 때

엔지니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고민하다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람을 느끼지요. 10여 년간 개발 분야에만 있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장치를 개발하여 회사의 일익을 담당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새로운 도전과 목표에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4. 2011년 새해 목표가 있다면?

초기에는 전자회로 및 프로그램 개발을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오랫동안 자동화 및 계측장치를 통한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지금은 나름대로 현상을 보면 접근하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세아업적상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콜릿 복근을 만들고 싶습니다. 운동은 계속 해왔지만 2년 전부터 운동과 식사량 관리를 하면서 12kg 체중감량을 했죠. 체중감량을 해 몸이 가벼워지니 운동이 더욱 재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러가서 한 시간 가량 달립니다. 올해는 식습관과 운동방법을 조절해서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군인들 같은 식스팩을 만들 계획입니다.

5. 개인적인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지?

등산과 운동을 주로 합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생겨서 좋습니다. 모든 선후배님들께 강력히 추천하고 싶네요. 운동을 시작한 후부터는 아침에 더욱 바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어 독서도 하곤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블루오션』이 기억에 남네요. 기존의 레드오션과 달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6.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근성과 협업입니다. 일을 할 때에는 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목표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있으면 일이 즐겁고 또한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나만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 외에 협업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라 자부하는데, 다른 분야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동료들의 도움을 받거나 요청한 자료를 생각보다 빨리 받을 때는 동료들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업무뿐 아니라 고민이나 즐거울 때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은성수 Part Leader에게 힘이 되는 **다섯 가지**



하나. 친가, 처가 부모님 제가 막내라 그런지 몰라도 매사에 우리 가족을 먼저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 항상 감사합니다.



둘. 나의 가족 가족이란, 늘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와 아이들 생각만하면 저절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많이 커서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말수도 줄었지만 늘 사랑스러운 우리 두 딸.

셋. 친구 일이 바쁘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해도, 언제 봐도 편안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 친구입니다.

넷. 회사 동료 및 선후배 하루에 반, 인생의 반을 보내는 회사에서 항상 함께 울고 웃고 고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즐거움을 나눌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섯. 운동 건강과 삶의 활력소.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삶에 활력과 엔돌핀을 선사해 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Profile

이름 | 은성수

별명 | 땅콩. 중학교 때 키가 작다고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좋아하는 것 | 헬스, 등산

싫어하는 것 | 남을 이용하는 행동

인생의 모토 |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살자.

새 출발

2011년,
새해의 첫 해가 밝아오기 전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결심을 해 봅니다.

스스로 발전할 것,
끊임없이 도전할 것,
사랑을 나눌 것

올 한해 지켜나갈 일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신묘년 새해의 아침,
또 한 번 결심합니다.
힘차게, 다시 뛰자고!



세아특수강 절친 삼총사의
〈조선명탐정〉 관람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의 풋풋한(?) 3인방이 모처럼 영화관을 찾았다. 비슷한 나이, 제각각 다른 성격에도 세아특수강에 들어와 세아를 이끌어갈 인재로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겪는 세 청년의 왁자지껄 〈조선명탐정〉 관람기를 따라가 본다.







입사 동기와 룸메이트 사이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온다. 훤칠하고 시원시원하게 생긴 김경우(28) 사우, 사람좋은 미소를 가진 김동기(29) 사우, 점잖고 수수한 눈빛을 가진 류상우(30) 사우다. 세아특수강의 샛별같은 절친 3인방, 팀은 같지만 하는 일은 제각각인 이 세 사람은 끈끈한 정을 자랑하는 입사 동기로, 삶을 나누는 룸메이트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다. 김경우 사우와 김동기 사우는 입사 동기로, 김동기 사우와 류상우 사우는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다. 비슷한 또래지만 업무도 다르고 근무시간도 조금씩 달라 회사에서는 안타깝게 눈빛만 주고받으며 갈 길을 가야했지만 오늘은 셋이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할 생각에 사뭇 설레는 표정이다. 영화를 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들에게는 영화 한편 관람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고 긴장되는 날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일까? 최근에 본 영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서로를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트린다.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학창시절부터 국사와 탐정극을 좋아했다는 이들이 선택한 영화는 김명민, 한지민 주연의 〈조선명탐정〉이다.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600만 명을 훌쩍 넘긴 흥행작이다. 영화를 보기에 앞서 인사동에서 공수해 온 부채를 선물했다. 김명민이 영화 속 탐정 노릇을 하는 동안 줄곧 손에서 놓지 않는 소품이기도 했지만, 솔솔 부는 손바람을 만들어 주는 종이부채처럼 느긋하고 시원한 우정을 만들었으면 해서다.





기대와 설렘을 안고
영화를 보러 나섰다.
시커먼 남자 셋이 영화를
보러 가면 쑥스러울 법도 한데
주변 시선은 아랑곳 않고
호탕하게 웃으며
극장으로 향한다.

함께 한 기간은 6개월 남짓. 소탈하고 허물없는 성격 덕분에 금방 친해졌다는 세 사람은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도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를 챙기고 이해한다. 류상우 사우는 과묵한 경상도 남자다. "상우 형은 집에서 청소를 정말 잘 하세요. 같이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다죠." 형이지만 셋 중에는 가장 늦게 입사한 탓에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류상우 사우를, 같은 방을 쓰는 김동기 사우가 알뜰살뜰히 챙긴다. "저희는 한지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니까요~!" 껄껄 웃으며 너스레를 떠는 김경우 사우는 분위기 메이커다. 거기에 김동기 사우가 한 소절씩 거든다.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지민 씨를 사랑하면 안 되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던가. 영화 관람 전에 예약해 둔 태국요리전문점으로 갔다. "태국 음식은 처음인데 맛있네요." 뭐든지 잘 먹는다는 시원시원한 성격의 세 사람은 향이 강한 태국 음식도 곧잘 먹었다.

기대와 설렘을 안고 영화를 보러 나섰다. 시커먼 남자 셋이 영화를 보러 가면 쑥스러울 법도 한데 주변 시선은 아랑곳 않고 호탕하게 웃으며 극장으로 향한다. "지금까지는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적응하느라 바빠 제대로 한번 뭉칠 시간도 없었어요. 앞으로 서로 더 챙기고 도우면서 세아의 미래를 책임져야죠", "다들 신입으로서 첫 한 해를 무탈하게 보내고, 팀 내에서 톡톡 튀며 없어서는 안 될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다짐들을 내보이며 듬직한 미소를 짓는 세 남자.
앞으로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버팀목으로 성장할 3인방의 끈끈한 우정은 계속될 것이다.



추리+코믹+액션=퓨전사극!

류상우 사우

보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아 지루할 틈이 없었고, 탁월한 코믹연기의 오달수와, 능청스러운 연기를 선보이는 김명민의 연기 대결! 이번에 연기변신을 선택한 한지민의 연기 또한 매력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순하고 귀여웠던 한지민이 팜므파탈이라니!!! 속편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어린 시절 탐정이 꿈이었던 나

김동기 사우

조선명탐정!! 한 때 국사와 탐정극을 좋아했기에 흥미로운 영화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관람했습니다. 전형적인 권선징악 영화네요. 교훈은 착하게 살자(?). 공납 비리를 저지르는 탐관오리를 밝혀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김명민! 김명민과 오달수의 코믹 연기로 인해 진지함 속에 웃음을 빵빵 터트릴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오달수의 정체에 대한 반전도 나름 굿!!



두 남자의 명연기, 명대사!

김경우 사우

큰 재미나 감동은 없지만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웃음으로 지루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황당한 설정과 반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배우들의 열연 덕분에 즐겁게 봤습니다. 김명민, 오달수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달수 명대사, 자주 쓰게 될 것 같네요. "배고파, 배고파…. 밥 줘."(노비들의 비밀을 엿들어 들키자, 바보 행세를 하려고 하는 말)







세아가족들의 생생하고 톡톡 튀는 생각들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Q. 지난 주, 생전 복권 한 장 안 사던 내가 심심풀이로 해본 로또. 토요일 저녁 TV 앞에 앉아 과일을 먹던 나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10억! 로또 당첨이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은?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온다면, 세아가족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

생생 Talk, 생생 Action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한국번디 구매팀 **최성운**

우선 회차가 맞는지 확인한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어도 입은 근질거리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거다.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휴가를 낸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차분하게 로또와 10억 원을 교환한다. 평소 먹고 싶던 호떡집에서 호떡을 미친 듯 먹고 천만 원짜리 수표를 건넨다. 아주머니가 당황하시겠지? 30대 성공의 상징인 BMW를 한 대 구입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회식을 쏜다!

로또 대박이 뭐 별 건가요?

영업기획팀 **조광옥** 대리



일단, 이 기쁜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우선, 투자한 주식이 대박났다고 말하고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부모님을 근처로 모시기 위해 집을 마련한다. 난 효자니까. 흥청망청 전부 다 쓰지 않고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 나머지는 은행에 넣고 그 이자로 가족여행 경비나 여타 생활비로 사용한다. 그리고 회사를 더 열심히(?) 다닌다.





내가 바로 슈퍼스타!

한국번디 노동조합 **유옥희**

로또 당첨 사실을 귀신같이 알아챈 기부단체들의 연락과 괴롭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성형외과로 간다. 송혜교처럼 싹 성형을 해서 군대 간 현빈이 제대할 동안 회복한 후 연예인이 된다. 그리고 날 설레게 했던 〈시크릿가든〉 시즌2를 찍는다~ 슈퍼스타가 되면 현빈 사인과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한국번디에 기부해야지!



사회지도층의 센스란 이런 것

한국번디 재경팀 **김세현** 대리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생길 것이다. 그건 바로 입원! 눈 튀어나옴+심장마비 증세+고혈압 등. 깜짝 놀라서 콩알만 해졌을 내 간과 두 눈, 심장에게 휴식을 선사한다. 스위스 초특급 일류 초호화 병원 럭셔리 1인실로 전용기를 타고 출발~ 아리따운 금발의 간호사님들과의 데이트는 보너스다. 난 사회지도층 된장 환자니까~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세아 ESAB 구매물류팀 **최두용**



그동안 생활반경은 대한민국의 한 도시였지만, 이젠 지구본을 보다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간다! 세계 여행을 하며 나만의 다큐멘터리를 남기고 싶다. 오지를 돌며 인생에 대해 고찰해 본다. 여행이 끝나면 한 주는 뉴칼레도니아에서 수영을 즐기고, 한 주는 캐나다 설원에서 스키를! 여자친구가 있다면 더욱 로맨틱할 텐데….



배고픈 기숙사생들이여, 나를 따르라!

세아 ESAB 재경팀 **장유일**

계좌에 찍힌 0자릿수만 수천 번은 세어 볼 것 같다. 집을 한 채 사서 결혼할 때까지 전세로 내놓는다. 그전까지는 기숙사 생활을 할 건데, 나를 포함해 아침도 못 챙겨 먹는 기숙사생들을 위해 각 방마다 밥통과 생활용품을 넣어 준다. 그리고 부모님 용돈 두둑하게 드린다. 나머지는 아끼면서 기부금도 매달 내서 연말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싶다.

앉으나 서나 세아 생각

세아홀딩스 사업개발2파트 **박지은**

그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모두 상장된 세아의 주식을 구입하는데 투자한 후 좀 더 일을 즐기며 할 것이다. 세아그룹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 내 일에 더 책임감이 생기고 또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앉으나 서나 세아 생각인 나, 마음이 정말 예쁜 것 같다.











운동과 일만큼 정직한 땀은
없다고 하지 않은가.
땀을 흘리며 함께 하는 12명.
죽이 척척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일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터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볼링의 스트라이크처럼 **퍼펙트한 팀워크**

세아베스틸 생산관리팀

**군산 구산동에 하나뿐인 볼링장, 오늘 이곳에 조직문화가 우수한 팀으로 추천된 세아베스틸 특수강사업본부 생산관리팀이 떴다.
평소 12명의 팀원이 이곳에서 자주 볼링을 즐기기는 하지만 오늘 방문은 좀 특별하다. 생산관리팀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이기 때문이다.
12명의 몸, 하나의 팀워크를 가진 단단한 세아베스틸 생산관리팀의 볼링장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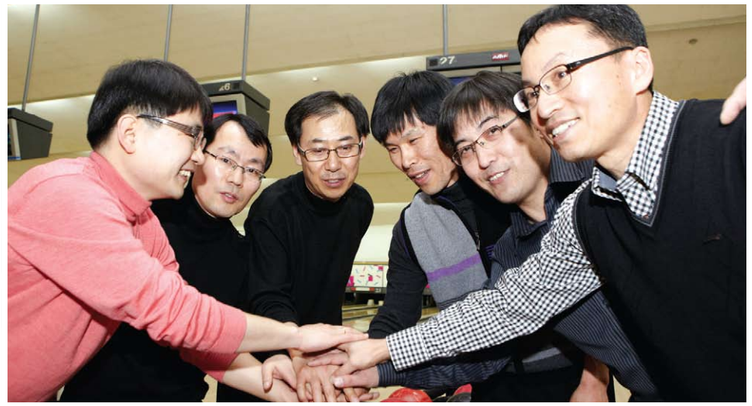
죽이 척척 맞다

퇴근시간, 피곤할 만도 할 텐데 볼링장에 들어서는 생산관리팀 12명의 팀원들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모두들 웃는 얼굴이다. 마음 맞는 좋은 사람들과 일하는 일터와 시간이라면 피곤할 리가 없다. 생산관리팀은 김필호 팀장의 필두지휘로 김영환 파트장이 이끄는 공정파트와 박정만 파트장이 이끄는 제품관리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제강과 최종 제품까지 특수강 생산을 담당하는 공정팀 9명과 생산이 끝나면 이를 제품화하는 제품관리팀 3명으로 이뤄져 있다.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에 앞서 볼링핀 앞에서 촬영을 했다. 또 확인해볼 차례다. 진정 팀원들의 화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진을 찍어보면 드러나게 돼있으니. 서로에 대한 어깨동무도 스스럼이 없고 장난기 가득한 웃음도 나이불문, 직위불문 똑같다. 다함께 환호성을 질러보자는 제안을 하자마자 터지는 팀원들의 힘찬 함성에 조용한 구산동 거리가 들썩했다. 그러고 보니 이들의 이런 힘차고 열정적인 팀워크는 구산동 거리가 아니라 이미 회사를 놀라게 하지 않았던가. 이들의 눈부신 팀워크로 첫 번째 사진촬영이 순식간에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간다. 볼링게임을 준비하는 팀원들의 포스를 보아하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모두 볼링화로 갈아 신은 뒤 자신에게 맞는 무게의 공을 찾으며 오늘의 승리를 다짐하는 팀원들. 늘 그랬듯 오늘의 대표 양 팀은 OB(올드보이) 대 YB(영보이)다. 사실 올드보이라 해도





외모만으로는 가늠하기 힘들다. 이들이 가진 밝은 표정 때문인지, 이들의 활기찬 분위기 때문인지 모두 나이와 연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젊다.

팀원들은 평소 다 같이 볼링도 자주 즐기고 당구도 치러 간다. 야구시즌이 다가오면 함께 우르르 야구장으로 응원가기도 한다. 지난 월드컵 시즌 때는 모두 붉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응원했다. 운동과 일만큼 정직한 땀은 없다고 하지 않은가. 땀을 흘리며 함께 하는 12명. 죽이 척척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일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터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로에게 박수쳐주는 사이

레일은 네 개. OB와 YB는 각각 2개의 레일에서 6명씩 돌아가면서 게임을 한다. 게임의 첫 포문을 연 사람은 신입 최중선 사원. 하지만 이를 어쩌나, 볼링핀을 하나도 쓰러뜨리지 못했다. 부끄러워하는 최중선 사우에게 괜찮다고 더 힘차게 손바닥을 마주쳐주는 선배 팀원들. 그 후 초반은 힘을 앞세운 YB팀의 선전. 하지만 곧 "딱! 와르르르~ " 볼링핀 10개가 쓰러지는 시원한 소리가 들린다. 모든 일이 연륜의 힘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 OB팀이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를 터트린 것. 게임을 계속하면서도 양 팀은 서로의 게임을 눈여겨본다. OB팀의 스트라이크가 못내 부러운 YB팀은 "왜 이렇게 잘 치세요!"라며 부러움의 투정을 부린다. 12명의 팀원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듯 볼링공을 던지고 굴리는 포즈도 방식도 다양했다. 하지만 이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공을 굴리고 돌아오는 팀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는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사실 저희가 즐기는 게임은 점수가 제일 높은 1등을 뽑는다기보다는 볼링을 치면서 스트라이크를 하는 시원한 감정이나 몇 개의 볼링핀을 남길 때 아쉬운 감정들을 함께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팀원들은 일 외적인 부분에서도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도 명색이 대결인지라 양 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팀원 한 명이 던진 공이 양

끝(아주 멀리 떨어진 두 개의 볼링핀)에 핀을 남기자 두 팀 모두 웃음이 빵! 터졌다. 12명의 팀원들이 자기 게임은 두고 양 끝에 남은 볼링핀 중 어떤 핀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시작! 볼링핀 하나에도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데 일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랴. 드디어 게임이 끝나고 MVP를 정할 시간. 게임점수는 다른 사원이 높았지만 오늘의 MVP는 모두가 의견일치로 신입 최중선 사원에게 주어졌다. 이렇듯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 아닌 상대에게 박수쳐주며 걸어온 시간동안 팀은 각자가 아닌 하나가 돼가고 있었다.







"저희 팀을 아우르는 팀장님은 생각이 젊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팀원들이 함께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요. 열정적이고 좋은 에너지가 많아서 팀워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김영환 파트장의 말에 생산관리팀 팀워크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온다. 세아베스틸은 순환보직제로 당사자가 원할 경우 팀을 옮길 수 있지만, 생산관리팀은 떠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끈끈하고 깊은 정을 가지고 있다. 일을 하는 회사에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어렵다는 말을 누가했던가. 생산관리팀 12명은 함께 일하기에, 운동하며 즐기기에 그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나누고 있는데 말이다. 마음을 나누는 빛나는 팀워크, 이 팀 안에 있소이다!

Today's MVP 최중선 사원

Q. 자기소개 부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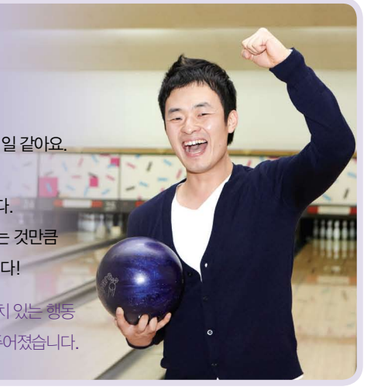
- 저는 작년 12월에 입사한 아직 딱지도 떼지 않은 신입사원입니다.

Q. 소감은요?

- 일단 너무 기뻐요!(정말로 기뻐함) 팀원들과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제일 기분 좋은 일 같아요.

Q. 팀원들에게 한 마디

- 늘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챙겨주셔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MVP 주신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만큼 팀의 막내로서 귀여움을 잊지 않고 늘 팀원들과 함께하며 활기찬 신입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MVP는 승부와 관계없이 격려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넘치는 애교와 재치 있는 행동으로 선배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최중선 사원입니다. MVP에게는 따뜻한 박수와 사랑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새해 첫 탄생한 아기 ‘세아’만큼 세아의 힘찬 한 해 기대

2011년 아침이 밝자 어김없이 새해 첫 기록들이 쏟아졌다. 힘찬 울음소리를 터트리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던 신생아의 소식도 그 중 하나다. 1월 1일 0시 0분에 태어난 신묘년 대한민국 탄생 1호 아기는 모두 4명. 그 중 서울 중구 퇴계로 제일병원에서 태어난 이선희, 고영관 씨 부부의 아이 ‘세아’의 탄생은 세아가족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글••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임이랑**

새해 첫 아기 ‘세아’

희망, 꿈, 새 출발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설레는 말이다. 1월 3일 신묘년 첫 출근과 함께 날아 든 소식은 특히 더 그랬다. 각자가 저마다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으며 뜨거운 마음과 당찬 각오로 2011년을 시작했을 테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아기 ‘세아’의 탄생 소식은 더없이 반가웠다. 대한민국 1호 탄생 아기가 된 ‘세아’의 이름이 각종 일간지에 실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이를 축복하며 새해를 맞았다. 세아홀딩스 사무실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다. 신문지면의 서두를 장식한 탄생 소식과 아기의 이름에 ‘올 한 해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이 찾아들 징조가 아닐까’하는 기대감으로 모두의 얼굴이 흐뭇하면서도 상기된 표정으로 물들었다.

생각지도 않은 좋은 소식으로 새해를 활짝 밝게 열어준 아기의 탄생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운형 회장님의 축하 편지와 선물, 그리고 세아를 소개하는 책들을 들고 아기의 집을 찾았다.







소중한 막내, 공주님

아기의 부모님은 기뻐하며 맞이해 주었다. 신묘년 0시 0분, 두 개의 시계바늘이 합쳐지는 순간 울음소리로 새해를 깨운 아기는 3.02kg의 여자아이였다.

두 아들에 이어 소중한 막내딸을 얻은 엄마 이선희 씨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라며 토끼같이 귀여운 첫 공주님을 안고서 행복한 소감을 전했다.

아빠 고영관 씨도 “많은 기자 분들이 제가 없을 때만 다녀가셔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오신다는 전화 받고 일부러 시간을 냈다”며 반겼다. “예정일보다 조금 빨리 태어났어요. 의사가 출산일이 며칠 빨라질 수 있다고는 말했지만, 이렇게 새해 첫 번째로 세상에 나올 줄은 몰랐어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또한 “5살과 3살 난 아들 둘만 있다가 딸을 갖게 되어 정말 예쁘다”고 시종일관 아기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첫째와 둘째 때 모두 여자아이인줄 알고 아기용품들을 여자아이 것으로 준비했었는데, 이제야 딸을 만나게 되었다”는 기다림도 전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득 담아

새해 첫 아이의 탄생인 만큼 주변의 관심은 대단했다.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삼 우리 아이가 정말 축복을 받았구나 실감했죠. 동네 사람들이 다들 뉴스를 봤다고 연락을 해왔고, 한동안 소식을 잇고 지내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서도 축하를 많이 받았다”며 새해에 맞춰 세상으로 나온 딸 덕분에 유명세를 탄 사연을 들려 주었다.

분만을 기다리며 진통이 심하지 않았을 때 부부는 ‘새해에 낳은 아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어떨까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 내용들이 매체를 타고 공개되면서 우리 세아가족들에게도 기쁨의 순간을 선물해 주었던 것이다. 부부는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탄생한 만큼 딸의 이름을 놓고 계속 고심 중이라고 했다.

새해 아침 ‘세아’의 탄생으로 반가운 소식을 접하며 올해 신묘년을 특별하게 시작했다. 만물의 생장과 번창,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해를 맞아 첫 아기 ‘세아’가 아주 건강히 태어난 만큼 2011년 세아에도 이 아기처럼 밝고 힘찬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SeAH NEWS

2011
JANUARY+FEBRUARY
VOL.331

» Group News

불우이웃돕기 성금 5억 원 기탁

세아그룹은 12월 24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5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세아제강, 세아베스틸을 비롯한 계열사 7개 사가 함께 참여한 것이다. 세아그룹은 매년 연말 2~3억 원 가량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활동을 펼쳐왔으며, 2009년에는 3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故 해암 이종덕 창업회장 일대기 만화, 전국 학교 배포

故 해암 이종덕 창업회장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책이 전국 학교에 보급됐다. 1월 11일 기업가 3인의 단행본 세 권으로 구성된 〈만화 CEO 열전〉 시리즈(글 · 그림 유영수)를 출간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초 · 중 · 고에 이를 무상 배포했다고 밝혔다.
故 해암 이종덕 창업회장은 국가 산업의 주춧돌 기업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1960년 현 세아제강의 전신인 부산철관공업을 창립한 후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에 일생을 바쳤다.



» 세아제강

혁신 소그룹 자랑대회 개최



12월 20일 포항공장에서 2010년 전사 혁신 소그룹 자랑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세아제강 각 사업장에서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9개의 소그룹이 참가해 경쟁을 벌였다. 이휘령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행사는 오랜 준비와 노력이 돋보이는 소그룹들의 발표로 이어졌다.

포항공장, 정년 퇴직자 환송연 개최

포항공장에서는 12월 31일 하재우 대표의 주관 아래 2010년 정년 퇴직자 환송연이 열렸다. 정연철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20명과 퇴직자 가족들이 자리한 가운데, 정년 퇴직자 대표로 김윤호 전문직 팀장이 '후배사원에게 드리는 글'로써 퇴직 소감을 전했다. 포항공장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땀 흘리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끝에 명예롭게 퇴장하는 정년 퇴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시무식 개최



1월 3일 세아제강에서는 사업장별로 시무식이 개최됐다. 본사 시무식에서는 이휘령 사장이 신년 인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던 2010년, 강관 누적 생산량 2,000만t을 달성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경영목표를 달성했던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2011년에도 수요 부진과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지만, 준비된 전략을 목표 필달의 의지와 자신감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올해도 눈부신 성장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리점 신년회 개최



1월 4일과 7일, 세아제강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대리점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세아제강은 대리점 사장단과 임직원이 만나 매년 신년 인사회를 열고 있다. 올해 인사회 자리에서도 세아제강 임직원과 대리점 사장단은 새로운 각오와 화합을 다지고, 판매 일선의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2010년 대리점 우수사원 시상식을 가졌다.

» 세아베스틸

정년 퇴임식 개최



12월 21일 세아베스틸에서는 2010년 정년 퇴직자 20명의 퇴임식이 개최됐다. 신홍수 전무와 설승욱 노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랫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준 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의 뜻을 이어 더욱 훌륭한 기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퇴임자에게는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를 선물했다.

시무식 개최



세아베스틸은 1월 3일 이승휘 대표와 설승욱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시무식을 열었다. 이승휘 대표는 "2010년 한 해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전 임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며, "2011년 신묘년에는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난해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4/4분기 우수사원 포상



1월 7일 세아베스틸 각 본부에서는 4분기 우수사원 포상이 진행됐다. 4분기 우수사원 포상은 총 47명으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회사 발전에 기여한 사원들을 각 팀 추천으로 선정했다. 포상자에게는 표창장 및 부상이 전달됐다. 4분기 우수사원 포상자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모범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1년 1분기 우수사원 포상은 4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혁신 소그룹 발표대회 개최



2011년 혁신 소그룹 발표대회가 1월 20일 세아베스틸 본관 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예선 경쟁을 뚫고 10개 소그룹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1년 동안 현장에서 개선한 생산성, 품질, 원가절감 등의 사례 공유를 통해 사원들의 개선 의욕을 고취시켰다. 대상은 '단조방법 개선으로 단조재 수율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일반단조팀 시나브로 소그룹이 차지하고, 금상은 연주팀의 좋은 생각, 소형정정팀의 월드바B, 품질보증팀의 메탈리스트 소그룹이 선정됐다.

사랑의 헌혈 실시

1월 24일 세아베스틸에 '사랑의 헌혈' 행사가 열렸다. 세아베스틸을 찾은 적십자사 헌혈 차량에서 오전 10부터 진행된 헌혈 행사는 자발적으로 헌혈을 희망하는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모아진 혈액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혈을 요청한 전국의 병원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금연구역 운영

세아베스틸은 1월 14일부터 공장 및 기숙사 실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세계적으로 담배 없는 사회, 직장, 학교 만들기 노력이 퍼지고 있는 시점에 세아베스틸도 그에 동참하여 금연에 대한 의식 수준을 변화시켜 흡연율 감소를 유도, 전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금연구역 운영을 결정했다.

»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월 생산량 1만t 달성

충주공장은 12월 20일 월 생산량 1만t 달성에 대한 기념석 제막식을 가졌다. 충주공장은 2006년 1월 생산 시작 당시 월 생산량 3,600t 수준에



서 2010년 10월 월 생산량 1만t을 달성하여 5년 만에 3배에 가까운 성장을 실현시켰다. 이번 월 생산량 1만t 달성과 더불어 4월 준공 예정인 충주 제2공장에서 CD Bar와 Bar to Bar, Peeled Bar 등 신규 제품 생산을 앞둔 충주공장은 포항공장과의 양대 생산공장체제 구축 목표 실현에 바짝 다가서게 되면서 제1의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더 큰 각오를 다졌다.

충주공장, 불우이웃돕기 쌀 기부



충주공장이 12월 연말을 앞두고 충주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용탄동 주민자치센터에 햅쌀 100포를 기부했다. 쌀 기부 행사는 충주공장 설립 이후 지역사회 환원활동으로 매년 시행해 왔다. 지역의 쌀을 구매하여 기부함으로써 지역 농가도 돕고 불우이웃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시무식 개최



세아특수강은 1월 4일 포항공장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대표이사로 취임한 유을봉 대표는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2010년 매출액 5천억 원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2011년은 신규 사업 추진 등 매출액 1조 원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해인만큼 새로운 마음가짐과 도전정신으로 올해의 경영목표를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 한국번디

광주공장, 사내 자격 Level 2 실시



광주공장에서 12월 1일 실시한 사내 자격 Level 2 이론시험에서 Level 1 자격 취득자 78명 중 61명이 합격하여 78%의 합격률을 보였다. 또한 2주간의 실기과목 교육 후 치러진 12월 22일 사내 자격 Level 2 실기시험에서는 61명 전원이 합격했다. 2011년부터는 사내 자격 Level 3과정과 제2회 사내 자격 Level 2의 이론 및 실기 검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공장, 설비보전기사 및 기능사 배출

광주공장은 한국폴리텍V대학과 산학 협동으로 추진하는 '설비보전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서 2010년 한 해에 설비보전기사 1명, 기능사 2명을 배출했다. 이로써 현재 광주공장은 설비보전기사 2명, 기능사 6명을 갖추면서 더욱 발전된 체계를 구축했다. 설비보전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은 현장 팀장 및 Operator와 공무보전부서 실무자들의 설비 점검 및 보전 부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국가 자격증이다.

평택공장, 금연교육 실시

평택공장은 2월 1일 전사 금연 시행을 앞두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25일 최중호 청소년금연금주운동협회 회장을 초빙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금연의 필요성을 사원들에게 알리고, 금연 포스터 부착 및 슬로건 공모 등 단계별 금연 활동, 금연 성공 여부에 따른 Incentive 및 Penalty를 통해 적극적인 금연 유도와 사후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 세아에삽

'2010 자원봉사자의 날' 경남도지사상 수상

12월 3일 '2010년 자원봉사의 날' 기념 행사에서 세아에삽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쓴 공로로 경남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창원시 동진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연희 도의원, 창원시 김이수 시의회의장,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여 개 단체가 시상대에 올랐다.

'세아 가요제' 종무식 개최

12월 30일 세아에삽 본사 대강당에서는 보기 드문 종무식이 개최됐다. 세아 가요제를 겸한 2010년 종무식은 많은 사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후처리A팀 20명의 합창을 시작으로 총 11개팀, 45명이 참가했으며, 금상은 전처리C팀 권용대 사우가 수상했다. 이날 종무식에는 2010년 정년퇴임하는 사우들을 위한 간단한 기념식도 함께 치러졌다.

시무식 개최

세아에삽은 1월 4일 전 임직원과 지역사무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시무식을 열었다. 유덕상 대표는 새로운 경영목표와 방침으로 첫째, 교육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 둘째, 조직 간 개인 간의 원활한 소통, 셋째, 경영혁신활동 STEP 2012의 집중을 통한 '기본과 원칙' 준수로 마음의 귀를 높이 세우는 '경청'을 당부했다. 이울러 사원 건강 증진을 위해 공장동 2층에 새단장한 헬스장 리모델링 개장식도 가졌다.

DSME 2010 우수협력업체 감사패 수상



세아에삽은 1월 11일 대우조선해양 DSME GLOBAL TOP 협력회의 2011년 신년 정기총회에서 2010년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세아에삽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재료 공급을 통해 고객사의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여 수상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세아에삽은 공식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국내 최고 협력업체로 인정받아 더욱 확고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게 됐다.

세아드림, 불우이웃 후원 물품 전달



세아에삽 봉사동아리 세아드림이 1월 22일 사회복지단체 '동진노인복지재단' 외 3개 기관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후원 물품은 2010년 연말 사내 불우이웃돕기 활동으로 모은 성금 약 140만 원으로 준비한 것이다. 이외에도 매년 후원하고 있는 풀잎마을에는 원생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꽃들에게 희망을' 단체에는 협력업체인 세운철강과 함께 쌀을 기부했다.

» 세아메탈

불우이웃돕기 물품 전달



세아메탈은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이불 24채를 마련하여 12월 30일 창원 웅남동 주민자체센터에 기부했다. 세아메탈에서는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쏟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자 모금을 시행했다. 직원들의 희망하는 금액의 급여 공제를 신청받거나, 커피 자판기 등의 수익금으로 성금을 모아 겨울철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 향후 세아메탈은 매년 모금 활동을 실시해 소외된 이웃을 도울 예정이다.

시무식 개최



1월 3일 세아메탈은 창원 본사 강당에서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 고윤준 대표는 "2011년 새해는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매출액 향상을 도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모든 직원들은 가격, 품질, 납기에서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혁신 소그룹 발표대회 개최



12월 3일 세아메탈은 2010년 혁신 소그룹 발표대회를 실시했다. 각 혁신 소그룹은 2010년 한 해 동안 선정했던 활동 테마에 대한 진행 결과를 발표하면서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품질 향상을 위해 한층 더 적극적인 결의를 다졌다.

» 강남도시가스

시무식 개최



1월 3일 강남도시가스 강당에서 2011년 시무식이 개최됐다. 임진호 대표는 "2010년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경제 여건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회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 자세"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경영방침을 성장 잠재력 확충, 창의적 조직문화 육성, 안전 시스템의 내실화로 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2010년 고객센터 지도평가 결과, 제11, 12고객센터가 각각 최우수, 우수 센터로 선정되어 상패와 격려금을 받았다.

취약계층 생필품 후원



강남도시가스는 1월 28일 설을 앞두고 공급권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세대를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고, 가스시설 특별 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고객 접점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객센터 검침원 및 안전 점검원의 추천 가정과 회사에서 지원해 온 기존 세대들로 선정했다.

비상훈련 실시



강남도시가스는 12월 22일 본사 운동장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2010년 하반기 가스사고대비 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본사 및 고객센터, 협력업체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긴급 테러로 인한 가스사고에 대비했다. 임진호 대표는 훈련을 마치면서 긴급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해 사고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아이앤티

시무식 개최



세아이앤티는 1월 3~4일 울산과 대전 공장에서 각각 시무식을 개최했다. 안상을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2010년 한 해 동안 노력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2011년에는 세아이앤티 성장의 중요한 기틀인 성장동력 확보와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공기기 부문,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개최



세아이앤티 플랜트사업부 화공기기 부문은 1월 7~8일 양일간 울산대학교 연수원에서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역량 강화, 경쟁력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테마로 진행됐다.

PLM World 모델링 콘테스트 입상



12월 7~8일 동안 2010년 Siemens PLM Software가 후원하는 PLM World 모델링 콘테스트에서 세아이앤티 플랜트사업부 산업기기 부문 박영원 과장이 입상했다. 이번 성과는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전자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기술력으로 경쟁하여 거둔 것으로 높은 기술력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 해덕스틸

홈페이지 새 단장



해덕스틸이 2011년 1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idukssteel.co.kr)를 새롭게 단장해 오픈했다. 새로운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은 젊은 감각에 맞춰 플래시를 사용했으며, 회사의 이미지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상단의 메뉴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도록 퀵 메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아홀딩스

● **입사** ** **여운동** 정도경영파트(전입) | **이한성** 성과관리파트(전입) | **홍정은** 재무관리파트 | **유원정** 인재개발파트 | **김현석** 경영지원파트

세아제강

● **입사** ** **백상민** 본사 생산계획팀 | **하강명** 포항 설비보전팀 | **김동민** 기술연구소 용접기술파트 | **윤대근** 포항 생산기술팀 | **송경석** 기술연구소 설비기술파트 | **이재영** 창원 품질경영팀 | **이정석** 군산 설비팀 | **유진상** 군산 품질경영팀 | **김미혜** 창원 생산팀

● **결혼** ** **박민석** 포항 생산2팀

● **출산** ** **강용이** 포항 생산1팀 | **김근수** 포항 도금반 | **윤성탁** 포항 물류팀 | **이무제** 포항 물류팀 | **조영래** 군산 생산2팀 | **임채훈** 군산 생산2팀

● **조의** ** **박준민** 본사 생산계획팀(조모) | **김성태** 포항 생산2팀(모친) | **은성수** 기술연구소(부친) | **김종무** 포항 생산1팀(모친) | **이유우** 포항 생산1팀(부친) | **임종수** 포항 물류팀(부친)

세아베스틸

● **조의** ** **소병기** 소형압연팀(부친) | **김귀식** 소형정정팀(부친) | **한태순** 연주팀(부친) | **양동훈** 압연설비팀(부친) | **이경만** 품질보증팀(모친) | **류동원** 품질보증팀(모친) | **정창완** 에너지관리팀(장인) | **문석진** 시험연구그룹(장인) | **오병길** 인사노무팀(장인) | **이성만** 압연설비팀(장인) | **임병오** 연주팀(장인) | **김원태** 압연설비팀(장인) | **황재선** 일반단조팀(장모) | **최광집** 연주팀(장모)

세아특수강

● **입사** ** **손기홍** 충주 지원팀 | **김기범** 충주 설비파트 | **이솔** 충주 생산팀 | **김인식** 충주 생산팀 | **허정현** 충주 생산팀 | **김준영** 충주 생산팀 | **정채권** 충주 생산팀 | **김용원** 충주 생산팀 | **곽서원** 구매팀 | **이민형** | **신동국** | **정영훈** | **김동길** | **김민철**

● **출산** ** **정태경** 포항 품질보증실 | **김문순** 포항 품질보증실

● **조의** ** **안용석** 포항 생산팀(형제) | **안호석** 포항 생산팀(형제) | **김창식** 포항 생산팀(부친) | **손동원** 포항 생산팀(누나) | **김국현** 포항 생산팀(배우자)

한국번디

● **결혼** ** **배덕수** 광주 생산팀 ● **출산** ** **강주형** 평택 생산팀 | **강은비** 평택 생산팀 | **이제혁** 광주 생산팀 | **송진원** 광주 생산팀 | **채기영** 광주 생산팀

● **조의** ** **박치영** 평택 인력개발팀(장모) | **이병용** 평택 연구3팀(조모) | **한상철** 평택 생산팀(모친) | **신승섭** 광주 생산팀(부친)

세아에삽

● **입사** ** **김지건** 설비관리팀 | **박경현** 품질경영팀 | **손진수** 설비관리팀 | **이규혁** 국내영업팀 | **서민균** 재경팀 ● **결혼** ** **이덕찬** 설비관리팀 | **김동원** 기초연구팀 ● **출산** ** **김 진** 생산팀 | **윤형배** 생산팀 | **백중은** 설비관리팀 ● **조의** ** **곽희진** 생산기술팀(모친) | **정춘옥** 생산팀(아들)

세아메탈

● **입사** ** **조민호** 서울영업팀 ● **결혼** ** **김선우** 원주 생산기술팀 ● **출산** ** **김병화** 창원 설비환경팀 | **전진우** 창원 업무팀

강남도시가스

● **출산** ** **김현민** 요금팀

세아이앤티

● **입사** ** **이경한** 산업기기부문 생산팀 | **동기훈** 화공기기부문 영업2팀 | **양지원** 화공기기부문 생산팀

해덕스틸

● **입사** ** **박장훈** 서울영업팀 | **김설** 당진공장

세대스틸

● **입사** ** **박범수** 서울영업팀 | **백성수** 서울영업팀

Quiz |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 주세요.
정답표시는 엽서에 해주세요.

원본



문제



SeAH Reader's

사랑의 연탄배달, 이웃들에게 나눠줄 김장김치 담그기, 206회 헌혈 달성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세아인들의 모습이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줍니다. 세아가족들의 노고에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2011년에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귀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표지 인물 내용을 다룬 "유쾌, 상쾌, 통쾌!를 배달한다" 칼럼의 재미있는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퀴즈쇼에 출연했던 표지 주인공의 이야기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겹쳐져 조금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홍연희 포항 북구 장성동

〈세아가 응원합니다〉 칼럼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정을 베푸는 세아가 있어 겨울이 포근합니다.

박성욱 경기 시흥시 정왕동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 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지난호 퀴즈 정답



*지난 퀴즈 당첨자

김희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전기영 전국 군산시 소룡동
홍용식 대전 중구 유천1동
박성욱 경기 시흥시 정왕동
홍연희 포항 북구 장성동
유성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장희수 서울 양천구 신정3동
김귀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김숙자 포항 북구 학장동
박희준 경기 군포시 당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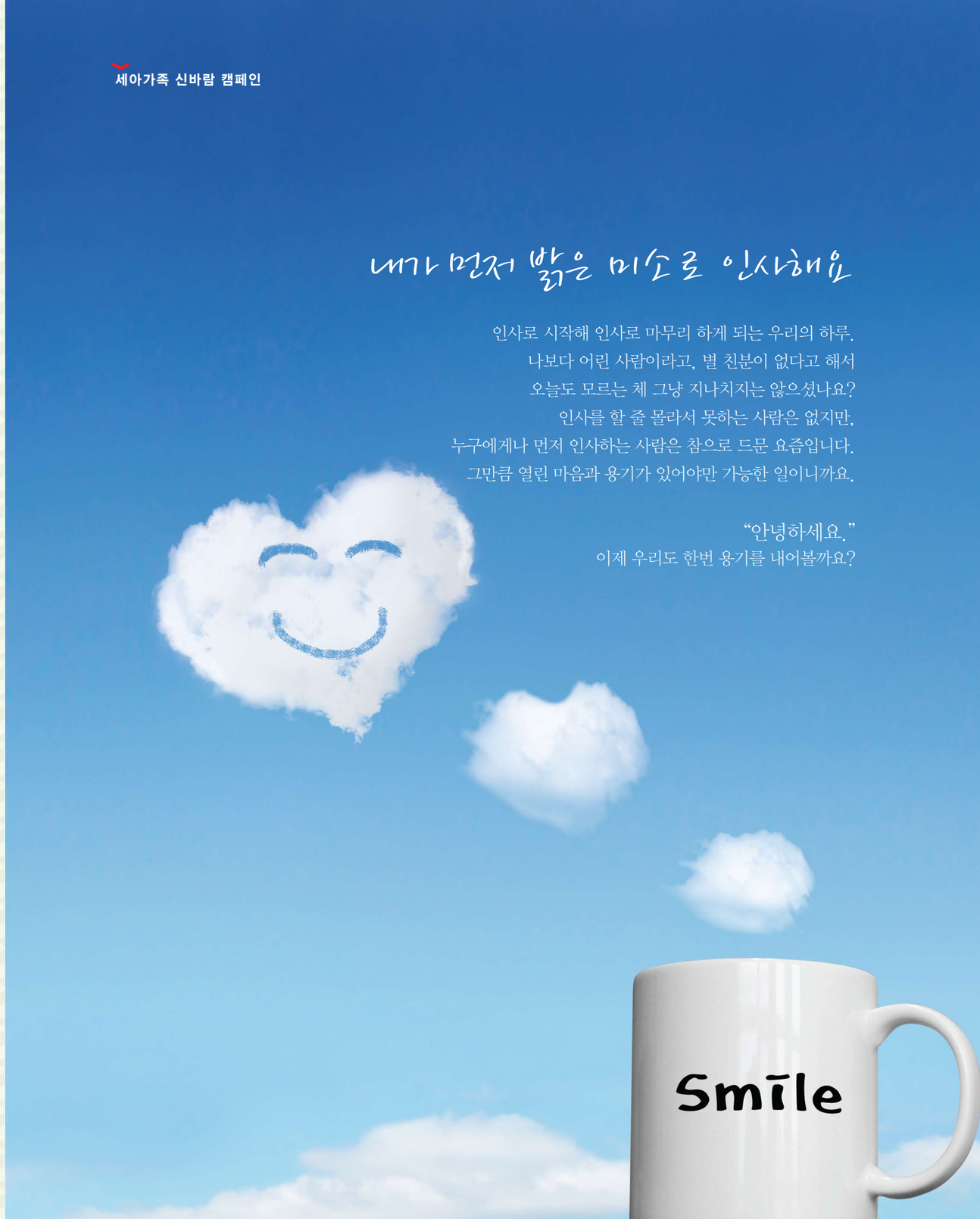
*〈세아가족〉 사보기자

박승균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 **고재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 **이동진**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 **이태원** 세아특수강 공장혁신팀(본사) | **박수연** 한국번디 전략기획팀 | **손은숙** 세아에삽 경영지원실 | **김종훈** 세아메탈 경영기획팀 | **이상기** 세아이앤티 플랜트사업지원팀 | **이근기**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 **권기범** 세아로지스 재경기획팀 |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지원팀 |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 **남예원** 광양합금철 재경팀(서울) | **조용권** 광양합금철 경영지원팀(여수)

내가 먼저 밝은 미소로 인사해요

인사로 시작해 인사로 마무리 하게 되는 우리의 하루.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별 친분이 없다고 해서
오늘도 모르는 체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인사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문 요즘입니다.
그만큼 열린 마음과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도 한번 용기를 내어볼까요?




용맹스런 전사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용접기술파트 은성수 Part Leader
예리한 관찰력과 통찰력으로 늘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는 그는
세아제강이 최고가 되기를 꿈꾸는 글레디에이터!